주 제:	"나의 달란트"	"연중 제 33 주일"	2008 년 11 월 16 일
복음 묵상:	[마태 25,14-30]	[잠언 31,10-13,19-20,30-31]	[1 테살 5,1-6]

하느님은 사람에게 각가 달리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한 가지 재능이 월등하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겐 여러 가지 재능이 함께 있고, 어떤 사람에겐 그저 평범한 재능이, 어떤 사람에겐 재능 이상의 어떤 특은(기적과 예언의 능력 등)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또 크고 작은 이 모든 재능들은 다 하느님이 주신 것이며, 하느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각각 그 나름대로 다 뜻이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재능을 착한 일(25,14), 즉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하느님이 맡기신 재능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만큼, 적게 받은 자는 그 능력만큼 각자 자기 재능을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 봉사에 바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을 마치 자신만을 위한 것인 양 자신의 출세와 부귀 영화만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려 우리는 재능을 맡겨 주신 분의 본뜻을 잘 헤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능이 다 하느님의 것이라는 점을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이 재능을 이웃을 위해 즐겁게 선용함으로써 이웃 안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느님이 각자에게 각가 달리 주신 크고 작은 재능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재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오직 충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김용배 신부님 강론중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김 효식 필립보 네리 형제님께서** Stephen Kim 군 연주회에 참석하여 격려를 해 주신 모든 성가대 가족들과 오시지 못하셨지만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 조 경자 율리아나 자매님 한국 여행을 즐겁게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남자 단원 제 2 차 단합모임**
  언제: **11 월 16 일** 교중미사마치고 연도 대회 마친후
  어디서: **이상규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댁
  2521 Cowper ST. Palo Alto, CA 94301

- 방 효익 신부님 과 이 레미디오 수녀님 Convention Center 에서 신앙 강좌
  일시 : **11 월 22 일(토) 오전 10-11:15, 1:00-2:15 pm**
  장소 : **Santa Clara Convention Center**
  5001 Great America Parkway, Santa Clara, CA95054
  많이 참석하시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 사항:

1. **소식지**에 그주의 복음말씀을 읽고 묵상한후 미사에 참석하여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십시오.
2. **화답송**은 매주 토요일까지 성가대 소식지에 실려 음원과 악보를 보내겠아오니 꼭 해 보시고….
3. **성탄 특송곡은** 웹에 성가대 연습실에 각 파트별로 올라있으니 연습을 하십시요.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0824

✦ 복음 **[마태 25,14-3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19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20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1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1분 명상

♡"자비·겸손·찬미·평화·사랑"♡

“가장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자비와 겸손과 찬미와 평화와 사랑입니다.”(성아오스딩)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는 바로 이 다섯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시며, 늘려보라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섯 달란트?
모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섯 달란트 중 하나만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만 더 벌었다 하더라도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은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 하나만 잘한 당신의 딸·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 자,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렇다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늘릴까요?

“불쌍한 사람에게 팔을 벌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뻗친다.
나의 작은 달란트가 필요한 이에게 베푸는 것”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더 늘리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자(利子)를 붙여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이지요,**